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방향과 전략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The Strategy of Korea's Environmen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이유경\*, 이호준\*\*  
 Yookyung Lee, Hojun Lee

요 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 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초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공적개발원조, 환경 ODA, ODA 동향 및 전략, 국제금융기구**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정회원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E-mail : [yklee.idc@gmail.com](mailto:yklee.idc@gmail.com)

\*\* 비회원 · 크라운랩스(주) 공공정책팀 팀장 · E-mail : [hjlee8687@gmail.com](mailto:hjee8687@gmail.com)